

보라색 여성

김진숙 목사의 이야기



2016 년 여름

Seattle, Washington

이 책은
나의 사랑하는
손자 대운 (Paul)
손자 대현 (John)
손녀 서연 (Nina)에게















Foreword

Foreword

제 1 부 서문

들어가는 말

웬 자서전인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가나 친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나를 많이 안타깝게 했다. 특히 외할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어머니의 어린 시절과 어른이 되어 우리를 길으실 때의 어머니를 더 많이 알았더라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영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재능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내게 학문적인 머리가 있다면 외가에서 온 것 같았다. 이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다른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위하여 무엇인가 써 놓아야 훗날 그들도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 수 있고, 나처럼 안타까워 하지 않을 것 같아 한글을 모르는 손자들과 손녀를 위해 영어로 내 일생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피 많이 써가던 중이었는데 동료들로부터 영어권이 아닌 후배들을 위해, 특히 한국여성들을 위해 한글로 쓰라는 요청을 많이 받게 되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의 것 말고는 남의 자서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누가 나 같은 이름없는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 의심스러웠고, 게다가 나의 아픈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내 재현하는 일도 끔찍했다. 그 것들을 세상에 노출시키는 일은 더더욱 내키지 않았다. 또한 졸필인데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글 철자법과 문법에도 자신이 전혀 없어 이래저래 망설였다. 그러나 후배들의 요청이 워낙

간절하고 졸작이라도 나같이 아픈 삶을 사는 여성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고 하니 이렇게 한글로 준비하게 된 것이다.

감사 (Acknowledgment)

이 같은 졸작을 쓰는 일에도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격려가 필요했다. 내가 이것을 쓰도록 적극 격려하고 교정을 봐 준 엄순희 목사,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동지선교회의 동료들과 나의 아들,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감사한다. 특히 이 글을 재 음미하고 정서하여 끝마치는 작업을 위해 비행기표까지 사서 남 가주 Rancho Cucamonga 의 조용한 빈집에 데려다가 필요한 것 까지 공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San Diego 의 Steve/ Marcy 사장님 부부에게 감사한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임신한 배를 안고 차를 몰고 와서 나의 심부름을 해준 그들의 딸 Jasmine 자매에게와, 주일에 교회에 데려다 주고, 시장 보는 일에 협조해 주신 이희철 목사님 부부에게 감사한다. Rancho Cucamonga 에서 옮겨 앉아 집필을 끝마치도록 불편함을 감수해가며 자신의 거처에 함께 거하도록 허락해 준 내 동료 최미길 목사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비행장에 내리는 순간부터 집필하는 동안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 정서적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신 내 친구인 Santa Anna 의 박찬희 권사님, LA 의김명옥 집사님과 Buena Park 의 내 조카 한상운 전도사에게 감사한다.

내 자서전은 지난 79년간 파란만장한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으켜주시고, 구출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의 "계시" 로, 그리고 일일이 등에 업으시고 인도하셔서 현재의 자리에다 옮겨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 인생 전체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와 훈련과정에 대한 간증이다. 내 이야기는 또한 특수한 여러 형태의 정치, 이념, 경제, 문화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인종적으로는 한국인이고, 국적으로는 미국시민이고, 문화적으로는 한국-미국문화라는 다문화에 살았던 한 한국인의 이야기이고, 한 한국교포 여성의 이야기이다.

본 자서전은 세 장으로 나뉜다: 제 1 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함경남도 함흥에서의 첫 11년간 (1935-1946)의 이야기이고, 제 2 장은 피난 와서 살았던 남한 서울에서의 24년 (1947-1970) 간의 이야기이고, 제 3 장은 미국에서 살았던 45년 간 (1970부터-현재)의 이야기이다.

왜 이 책의 제목이 왜 “보라색 여성”인가?

“보라색 여성”은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나를 잘 알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불러준 이름이기에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대표하는 대명사기 되어버렸다.

매년 3-4월이되면 사순절 계절을 맞게 된다. 사순절은 성회수요일 (Ash Wednesday) 부터 부활절까지의 40일간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반성하고, 기도, 금식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그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한다.

강림절이나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의 강대상에 덮는 수건이나 성직자의 stole 이나 가운이 자색 혹은 보라색이다. 자색은 왕의 존엄성을 상

징하는 색깔로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강림절에 사용한다. 많은 사람들은 보라색을 자색과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그러나 보라색은 아픔과 고난, 애도와 참회를 상징하는 색깔인데 사순절 아닌 강림절에 사용하는 이유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하면서 앞으로 닥쳐 올 그의 죽음을 예시하는 의미에서란다. 물론 사순절에는 보라색을 사용한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 교회란 노숙사역을 시작하면서 “노숙근절 (End Homelessness) 이 새겨진 셔츠를 제작했을 때 색깔을 보라색으로 택한 이유는 이러하다; 사순절 색깔이 예수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를 위해 살기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또한 금식하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 보라색인 것처럼, 즉 보라색이 고난의 색깔인 것처럼, 이 부자나라에 노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슬퍼하고 노숙자를 많이 산출해 내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회개하고, 노숙문제의 제도적인 근본원인을 외면함으로써 노숙자들을 "게으르다"고 일축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노숙자들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노숙근절 사역에 몸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사순절 색깔인 보라색을 택했다. 보라색이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인 것처럼 이는 또한 노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다. 나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보라색 셔츠를 밤, 낮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매일 입어 보라색 여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보라색을 입는 사순절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인 것처럼 나 자신의 아픔을 되새기는 기간이기도 하다;" 아픔"하면 내가 모르는 아픔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북 공산치하에서의 생활, 이남으로의 피난, 빈곤과 투쟁 끝에 온 한국전쟁과 피난살이는 물론 미국이민 생활에서 아들을 줄지에 잃은 일 모두가 심장 한복판에 파편이 배긴 것 같은 고통,

뼈를 끌로 깎는 아픔과 함께 후회와 죄의식이 살아야 할 이유를
버리게 한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아픔, 나의 아픔, 남
의 아픔 모두를 품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을 섬기듯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보라색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순절이 회개하는 기간인 것처럼
내게는 매일매일이 회개하는 날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게는 매일매
일이 사순절이다. 내가 입는 보라색 속에 숨은 이런 심오한 의미는 몰라
도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보라색을 보면 무조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생
각할 때마다 노숙자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니 나는 보라색으로 선교를
하는 셈이다. 보라색은 나의 노숙선교의 색깔이다. 그래서 보라색은 내
인생 색깔이고, 내 인생은 보라색 인생이다. 그리스도께서 파란 만장하고
깨지고 아픔이 많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처럼
나도 노숙자들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들의 아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니 결국 내 인생이 보라색 인생인 것이다.

십자가를 심으라



여기의 만화(그림)는 막달라
마리아 노숙여성 교회의
로고이다. 내가 막달라 노숙자
여성교회를 설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주신
"십자가를 심으라" 는 계시를
그린 것이다. 이 계시가 내가
노숙자 여성교회와 다른
노숙사역을 개척 하는 근본
동기와 사명이 되었고, 이 책의
제목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꼭 1년이 되던 1988년
부활절 새벽, 꿈에 단칸짜리 방의 작은 교회의 문 안 쪽에 나를
세워놓고 바로 거기에다 “십자가를 심으라. 그리하면 그 것이 지붕
밖으로 자라 나갈 것이다” 라고 큰 불 속에서 - 모세가 타지 않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 나도 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어로 “Plant the Cross. It will grow out the roof”라고 말씀하셨다.
내게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처음이라 감격하고 떨렸다. 그
계시가 너무도 분명하였으나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아 듣지 못해 여러
해 동안 고민했다.

그 당시 나는 Seattle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의
교목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계시의 뜻이라 여겨 더 열심히 영성
사역을 하던 중 의사들도 모르는 병을 앓게 되었다. 하루는 병원에
누워 하나님께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저는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앓는 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그 꿈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듣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병실 안이 온통 눈처럼 희고 환해지면서 비몽사몽간에 영안을 열어주시어 “십자가를 심으라”는 계시는 노숙여성 목회를 하라는 비전임을 밝혀 주셨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많은 젊은이들과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던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죽기도 힘든 참혹한 형틀이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치욕과, 멸시, 가족과 사랑하는 제자들, 동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 까지를 의미하는 육신적인 고문을 넘어,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픔과 번뇌와 외로움이었다. 이 그리스도의 고통은 바로 오늘 가난과 병과 학대와 강간과 버림과 무시와 절망이란 것들에게 몸과 영혼이 모두 밟히고, 찢기고, 버려져 길거리에서 걸식하며 노숙하는 여성들과 남성들과 아이들의 아픔과 외로움이기도 하다.

또한 십자가는 버림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환영, 높임과 용서, 소망, 은혜, 재생, 부활을 의미한다. 이는 노숙자들이 절망과 죽음에서 일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이고 생명이기도 하다.

십자가는 일생 동안 가진 것이나 집이나 명예나 이름이나 지위도 없이, 자신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몽땅 비워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의 정신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으나 빨리 찾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발자취요, 거울이요, 생명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노숙자들과 일반 기독교인들의 생활 속에 심으라는 뜻으로 주시는 계시임을 미련한 나는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심으라”는 계시를 품고 노숙자여성교회, 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셨다. 십자가를 심는 사역이란 교회

벽에 나무 십자가를 걸어만 두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일으키고, 살아 생동하는 십자가를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심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내게 말씀해주신 계시의 의미라고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 교회의 로고는 노숙이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통해 나음을 얻고 자유스럽게 되어 소망가운데 기뻐하며 교회 안팎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다.

나는 일생 동안 앓던 지병인 기관지 천식이 심해져 죽을 것 같아서 63 세 (1998)에 7 년이나 섬긴 노숙사역에서 은퇴하려고 준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은퇴하기 두 달 전에 또 다른 계시로 장로교 총회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7 년동안 전국적으로 순회설교의 길에 올려 놓으셨다. 그 때 나는 많은 장로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버려진 노숙자들의 생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 죽음에서 일으키자고 외치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사역이었다. 두 번 째 은퇴 후 오늘까지 내가 계속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이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심는 사명을 다하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심으라" 시던 하나님의 계시가 자연스럽게 이 책의 제목이 된 것이다.